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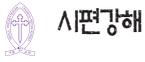
◎ 2008년도 표어 ◎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 행동지침 ◎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양떼와 하나님의 포도나무

(시편 80:1-19)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그의 권능이 없다면 어떤 영적 승리도 이룰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빌 4:13).**

본시는 합창의 형식으로 3, 7, 19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후렴을 반복합니다.

시편 80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므로 북왕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BC 721년 앗수르에게 함락되기 전 북왕국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 1. 주는 우리의 목자

“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1절).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며 포도원에서 심는 자, 가꾸고 돌보는 자라고 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른 것은 본 시와 시편 23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말한 것은 야곱의 고별사에서 처음 나옵니다(창 48:15-16). 야곱은 목자로서 라반의 집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창 31:40-42). 양은 무력하고 제 길로만 가며 어리석은 동물이라서 이들을 돌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되신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좌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또는 지상의 성전이나 회당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시인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2절)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 2. 아론의 축복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3절).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호소한 후 3절에 후렴이 처음 나옵니다. 이것은 민6:24-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처럼 보입니다. 시인은 이 축복을 수 천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취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취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다시금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앗수르 군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가 북왕국 멸망 전에 씌어진 것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 3.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두 번째 연인 4-7절에는 이스라엘의 현재 약속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의 죄에 대해 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눈물을 먹고 마시게 되었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우거할 때도 그랄 왕과 장관들로부터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사실을 저들이 알기 때문이었습니다(창

21:22). 선민에게 최고의 영광은 이 같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 거주하면서도 이방인들로부터 조소와 모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이방인의 비웃음은 선민에게 견딜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7절)라고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 4. 하나님의 포도원

본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부른 후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는 자, 가꾸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만 시편에서는 시편 80편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상징한 유일한 시입니다.

①과거 : 애굽에서 가져왔고, 심었고, 번창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준비해 두신 땅인 가나안에 심으셨으며 뿌리를 깊이 박으시고 온 땅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 그들은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백향목을 뒤덮으며 바다에까지 뻗었고, 그 냇골 또한 강까지 뻗어 번창한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

②현재 : 폐허가 된 포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외인들이 침입하여 닦치는 대로 베어버리고 불 질러서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울타리를 부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폐허화된 포도원에서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③미래 : 인자를 통한 회복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17절).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왕, 백성 자신, 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시인은 이같이 선민의 회복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죄밖에 지을 것이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살고 번영하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권능이 없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의 권능이 없다면 어떤 영적 승리도 이룰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빌 4:13).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시인의 가슴은 더욱 불타고 그의 음성은 더욱 애절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2008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 1월21일(월) 중등부 겨울수련회를 시작으로

2008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가 1월21일(월) 중등부 겨울수련회를 시작으로 2월까지 계속된다. 금번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는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 부흥'(총회주제)을 주제로 준비되며 이종운 위임목사의 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젊은이들을 초청하고 있다.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의 신앙 성숙과 회개의 시간이 될 2008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책임지는 이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각 교회학교 별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18(월) - 19(화)	서울교회	친구의 생명을 품는 어린이	이종운 목사 노현상 목사
유치부	2/18(월) - 19(화)	서울교회	친구의 생명을 품는 어린이	이종운 목사 이규정 목사
유년부	2/18(월) - 19(화)	서울교회	친구의 생명을 품는 어린이	이종운 목사 장석남 목사
초등부	2/18(월) - 19(화)	서울교회	친구의 생명을 품는 어린이	이종운 목사 서명철 목사
중등부	1/21(월) - 23(수)	연동교회 수양관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중등부	이종운 목사 이태훈 목사
고등부	1/31(목) - 2/2(토)	연동교회 수양관	영혼을 사랑하는 고등부	이종운 목사 정수길 목사 김용재 목사
사랑부	2/10(주)	서울교회	친구의 생명을 품는 사랑부	윤영국 목사 주원순 선생
대학부	2/14(목) - 2/16(토)	화이트 하우스	생명, 새 생명!	이종운 목사 윤영국 목사
청년1부	1/25(금) - 1/26(토)	같은 수련원	청년이며 영혼 사랑의 열정을 품어라!	이종운 목사 정수길 목사 방선기 목사
청년2부	1/25(금) - 1/26(토)	예담소	청년이며, 다시 태어나라!	이종운 목사 이태훈 목사
디아스포라	2/1(금) - 2/2(토)	서울교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도 품자!	이종운 목사 한상은 목사 박광일전도사
에바다	2/22(금) - 2/23(토)	미정	충성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종운 목사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6(토)	미정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 부흥	이규정 목사

# 성경 일천독 통독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성경일천독 대장정 시상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성경일천독 대장정은 지난 연말로 교회가 당초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성경읽기에 참여요청을 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 금년 설날연휴까지 연장하기로 한바 있다.

또한 우리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는 귀중한 시간을 매일 갖도록 돕기 위해 오늘 주보에 '성경통독카드'를 간지로 삽입하였다. 이번 한 해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 이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도록 기도한다.

- 5독>(3교구)김정순 권사
- 3독>(10교구) 최무순 권사
- 2독>(1교구)조순엽 집사 (7교구)이영기 장로 (8교구)강애자 권사 (14교구)신순복 집사
- 1독>
- (1교구)경은숙 집사, 김남중 성도, 김일순 권사, 김치덕 집사, 노순례 권사, 류승혜 성도, 박성미 성도, 박인자 집사, 석춘희 집사, 손영호 집사, 이미연 권사, 이화용 성도, 임미나 성도, 전인숙 집사, 조명오 집사, 채옥희 집사
- (2교구)김영호 집사, 성규호 집사, 유관모 집사, 이동만 집사, 이영애 집사, 이옥심 권사, 장호영 집사, 홍승자 집사
- (3교구)김수원 집사, 김종철 집사, 박영실 집사, 성선규 집사, 소선자 권사, 손기의 집사, 송용훈 집사, 윤운, 이건모 집사, 이은희 집사, 장인숙 집사, 전광환 집사, 최희재 성도, 홍지나 집사
- (4교구)김지숙 집사, 승영강 권사, 조철기 집사, 조형준 성도
- (5교구)박태선 집사, 엄금순 권사, 임성철집사, 이주희성도
- (6교구)최용걸 집사
- (7교구)김수경 선생, 김승민, 김승찬, 김영수 성도, 김재진 목사, 오영자 권사, 제오복 집사
- (8교구)강낙훈 집사, 심상희 집사, 이동권 집사
- (9교구)김미라 집사, 안성희 집사, 윤종덕 집사, 임대중 성도, 정치는 집사, 지성철 집사
- (10교구)이혜선 집사
- (11교구)김의정 성도, 노선균 성도, 함정희 집사
- (12교구)강희자 권사, 김신영 성도, 김형택 집사, 나미경 집사, 방승희 집사, 백소현 성도, 손지희 집사, 양동덕 집사, 양문열, 우고는 성도, 이상태 집사, 우스라 성도, 이상을 성도, 이희국 집사, 임인자 집사, 장덕 집사, 홍창배 집사
- (13교구)김영숙3 권사, 김영진 집사, 김옥 집사, 김주년 집사, 남경희, 박미경5 집사, 신도섭 집사, 이인숙 집사, 장미자 집사, 진교숙 집사
- (14교구)김미선 성도, 김영서 집사, 김현영 집사, 박계순 집사, 박영애 집사, 이신애 집사, 이화용 성도
- (초등부)강민수, 김신영
- (중등부)신호성, 엄효준
- (고등부)임지선, 차주호
- (대학부)손형호, 신민정, 오주명, 차선혜, 최인애
- (청년부)김요한, 김유현, 박은영, 배금여, 이태주, 최재우, 홍석현
- (에바다부)이승원

# 비전 2020운동 후원자의 밤

## 오늘 찬양예배 후 - 801호 만나홀에서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위한 비전2020운동을 후원하는 후원자와 국군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비전2020운동 후원자의 밤 행사' 가 오늘 찬양예배 후 801호 만나홀에서 열린다. 오늘 행사에는 우리교회 자매부대인 3사단, 23사

단, 육군사관학교, 6군단, 간호사관학교, 해병교육사령부에서 64 명의 장병들이 참석하여 찬양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쥬슈아 조 목사 영어예배부 부임하다



2005년 2월부터 영어예배부를 담당하여 수고하시던 A. Kinsler 목사님이 정년이 되어 오늘 퇴임하고 오늘부터 미국에서 오신 쥬슈아 조 목사가 영어예배부를 담당하여 지도하게 된다. 쥬슈아 조 목사는 1974년 한국 출생으로 75년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뉴저

지 주립대 졸업(1997),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졸업(2003), 안디옥교회(NJ), 새한교회(GA)시무, PCA 안수를 2006년에 받았다. 가족은 장미혜 선생과 3남(엘리아, 노아, 갈렙)이 있다.

# 제32기 전도학교 오늘 개강

## 오늘 오후 1시30분 - 802호에서

서울교회 전도학교 제 32기가 오늘 개강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도의 소명은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기다린다.

32기 과정은 1월 13일(주) - 3월 30(주)일까지 계속되며 오후 1시 30분 802호에서 열린다.

이종운 목사 신년 장기결석 환자 심방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월10일 목요일 겨울 날씨 답지 않게 햇볕이 따스하고 청명한 날, 이종운 목사는 불광동에 사시는 윤순탄 권사님 가정을 심방하였다. 윤순탄 권사님(87세)은 우리 교회 살롬권사회 회원으로 교회 설립



시랑께 이 찬송가사처럼 주님이 권사님을 꼭 지켜 주심을 믿으시고 모든 짐을 주께 맡기시라고 권면하였다.

이어서 베드로 전서 5장 7~11절을 함께 읽고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

“권사님은 장수의 복을 받으셨는데 그 만큼 인생의 괴로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근심 투성입니다. 근심 없는 이가 없습니다. 두 살 어린아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하나님이 윤 권사님을 아주 많이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고난을 모두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립 시부터 눈물의 기도를 드려온 분이시다. 하지만 연로하시어 견지 못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우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여의치 못하여 결석하고 계신다.

**주님이 권사님을 꼭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모든 짐을 주께 맡기세요**

불광동 언덕길을 굽이굽이 올라가 도착한 허름한 지하 단칸방에서 윤 권사님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종운 목사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다. 평소 어렵게 계시는 윤 권사님을 한 가족 같이 돌보고 있는 7교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목사님의 심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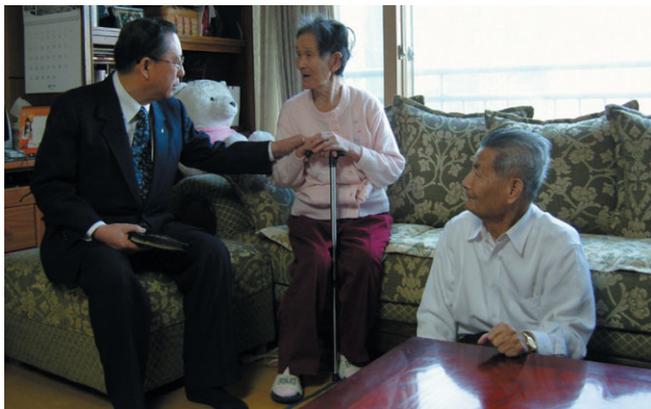
이종운 목사님은 찬송가 432장(너 근심 걱정말아라)을 부른 후 윤 권사님께 “평소 근심 걱정있으세요?” 라고 묻고 항상 근심 걱정이 많다고 하시는 권

씨에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하나님이 윤 권사님을 아주 많이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고난을 모두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종운 목사는 이날 윤순탄 권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며 심방을 마쳤다.

## 주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새 힘을 받으세요**

같은 날 이종운 목사는 증산동으로 이동하여 김재진 목사님 가정을 심방하였다. 김재진 목사님은 우리 교회 협동목사로 수고하고 계시며 90이 넘으신 부모님(김이기 집사님, 엄영애 권사님)을 모시고 계신다. 연세가 많고 정신이 흐려진 엄영애 권사님 역시 기력이 약해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다.



찬송 394장(주를 앙모하는 자)를 함께 부르고 이사야 40장 27절 이후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명철이 한없으신 하나님은 가정의 모든 괴로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앙망은 도움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 나는 것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새 힘을 받으세요. 그 힘

으로 여생을 승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셨다. 이 목사님은 연세가 90을 넘기신 두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시도록, 또한 모시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셨다.

유태서(편집부)

천국시민양성 - 중등부 겨울 수련회 초대이 글

##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중등부

1월21일(월) - 23일(수) 연동교회 수양관

김시환 집사(중등부 부장)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저희 서울교회 중등부에서는 오는 1월 21일(월) ~ 1월 23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중등부”라는 주제로 2008년 겨울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주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의 큰 그림과 인생의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GBS(Group Bible Study), 공동체 훈련과 학생들의 지적, 영적 수준과 평소 관심사들을 세심히 관찰하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선택(주제)특강을 도입하고, 멀티미디어에 친숙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영상자료를 준비하는 등 학습의욕과 흥미를 높여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 찬양과 개인별, 조별 기도를 비롯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연합 기도 시간과 푸른 십대 문화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체 특강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며, 중등부 이태훈 목사가 저녁 부흥집회를 인도하여 학생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꼭 참석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므로 커다란 신앙적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07년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만민에게 전도 - 전도상 수상 소감

# 네 입을 크게 벌려라



임명숙 집사(11교구)

어느날 갑작스런 몸의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 수술 후 몸엔 별 이상이 없게 되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어지러움증이 생겨 발걸음조차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병실에 누워 저는 하나님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몸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 친구의 인도로 서울교회에 등록하였고, 전도학교를 수료하고 70인 전도대 축호팀 조원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은 선임자를 따라 다니며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으나 전도열매가 없어 한편으로는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씨 뿌리는 심정으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축호전도를 하면서 때로는 아무도 없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돌아오는 통명스런 대답, 모욕적인 말은 나를 한없이 낙심하게 했지만, 주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은 전도의 열매가 거의 없었고, 3년이 되던 해에는 전도목표를 20명 작성하고 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몇 명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20명씩이나?’라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채워 주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지난 시간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진한 결과 연말까지 하나님 은혜로 18명을 등록케 되었습니다.

다음 해 기도 중 ‘네 입을 크게 벌려라’는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00명 이상을 작성하고, 전년에 채우지 못한 2명을 합해 102명의 목표를 세우고 백두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죽기살기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전도학교 교육을 마친 집사님들과 조를 이루어 같이 전도 하는 과정에서 큰 힘과 위로를 받으므로 목표이상을 달성케 해주셨습니다. 2007년에 또다시 하나님은 100명 이상 전도하기를 원하셨기에 전년과 같이 목표를 정하고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정진하며 채워주시길 기도한 결과 주께서 목표를 달성케 해주어 감사드립니다.

전도는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임을 알고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우리교회에서 자라는 음악인 가운데 한 사람인 최유현(최광성 집사·이정연 권사의 장녀)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게 된다.

최유현양은 프랑스 크레페이 음악원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에콜느르말 음악원 재학 중이며, 오르간, 피아노, 플루트가 함께 어울려 Exsultate, Jubilate, (환호하라, 기뻐하라)의 2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 수화교실 개강

1월 20일(주일)부터 수화교실을 개강한다. 수화를 배우기 원하는 성도들은 신청하기 바란다.

초급반(606호, 강사: 박은영), 중급반(609호, 강사: 이승원), 영어수어반(606호 강사: 노경섭)으로 열리며 초급반(오후 1시)과 중급반(오후 3시 30분)은 매주일 열리며, 영어수어반은 월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6일(수) 한국 기독교학교 연맹 45회 정기총회 개최설교를 한다. 17일(목) 복음신앙동지회를 소집한다.
- 조슈아 조 목사 사택 전화번호: 02-408-1138
- 승진: 김은태 집사(13교구) 하이닉스 상무보
- 수상: 이규민 집사(3교구, 동아일보 21C평화연구소장) '2008 연세언론인상'
- 주간식당 봉사: 제1권사회(1.13) 제2권사회(1.20)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농어촌 100교회운동, 비전 2020운동을 후원하시는 성도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농어촌 100교회운동과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는 비전 2020운동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전년도 후원회원 중 계속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

- <농어촌 100교회 운동 후원자 명단>**  
 고석규(한치중), 고아라고(요한), 김권집(왕경애), 김대호(남순덕), 김병호, 김복녀, 김상철, 김영주3, 노문환(장정화), 노송성(이영옥), 박경정(이인보), 신용식, 김희진(신주현), 오정수, 오형철(신동기), 이영기(이영숙), 이조훈(이교은), 이종율(이승희), 임광우(최미화), 임종식(신선주), 장인원(박영옥), 진돈, 차도훈(남태영), 하인선(남태순), 한광마(유성임) (다음 주 계속)

- <비전2020운동 후원자 명단>**  
 강승웅, 강요섭, 강진환(왕정실), 강희자, 고영순, 고윤화, 고후덕, 권장환, 김구진, 김금복, 김대호, 김병승, 김복순, 김상복, 김상열, 김상욱, 김상철, 김승배(박남순), 김영주, 김용준, 김용환, 김용환, 김은태, 김인순, 김재성, 김재혁, 김종자, 김주현, 김형배, 김혜경, 김혜란, 김혜연, 김희진, 나미용, 나연신, 남영주, 노문환, 노영숙, 박경욱, 박동희, 박영일, 박정선, 박정섭, 박태선,

서도 후원 신청서를 재 접수해 주기 바라며 농어촌 100교회 후원 봉투와 비전 2020운동 후원봉투는 202호 앞에 비치하였다.

- 박형수, 박희재, 배재승(임분도), 배정자, 백남운(김지희), 백승강, 서경애, 서영세, 서춘식, 서희숙, 선순례, 손명은, 송성식, 송인권, 송인수, 신용식, 신항범, 안준홍, 안홍희(전화진), 양옥자, 양춘경, 예완식, 오영숙, 오유식, 오정수, 오천수(서정현), 오형철(신동기), 왕경래, 우선자, 원용규(박이선), 유복달, 유을상, 유혁근, 윤숙지, 윤찬오, 윤태욱, 이갑연, 이갑달, 이강진, 이경희, 이계홍, 이관규, 이관포, 이광열, 이기일, 이남복, 이택민, 이미옥, 이복규, 이부자, 이상호, 이영기(이영숙), 이점숙, 임명자, 임병우(임혜림), 임상현, 장명순, 장인원, 장호립, 전수자, 전용순, 전원순, 정병무, 정복순(이근희), 정복락, 정연택, 정을순, 정종환(한경례), 정희진, 지혜영, 진경옥, 진돈, 차도훈(남태영), 차주호(차선혜), 최금봉, 최양진, 최태욱, 최항봉, 최혜진, 탁경준, 하인선, 한광마, 한상은, 한선현, 허경화, 허숙, 허인숙, 홍광숙, 홍순복, 황선희

(다음 주 계속)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8년 섬김위원으로 임명된 이들에게 성령충만, 은혜충만토록
2. 2008 겨울성경학교·수련회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3.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4. 사랑의 집 터를 속히 보여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5. 농어촌 미자립 교회 100교회 운동후원과 비전2020운동 후원자가 많이 생기게 하소서.
6.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